

“소비자들이 품질 알아봐 줄 때 보람 느낍니다”

新 농촌 꿈꾸는 청년농업인

김중범 강진 '싱글벙글 토마토 농장' 대표

귀농 계획 부모님 영향 원예학과 입학...2020년 농장 시작 '스마트팜' 활용 최적 생육환경 조성 연중 생산 최대 장점

“소비자들이 맛있으며 품질을 알아봐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강진군 성전면에서 '싱글벙글 토마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중범(30) 대표의 환경 관리에 중점을 둔 농장 경영으로 높은 품질의 방울토마토를 생산, 소비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최근 찾은 김 대표의 농장은 800평 규모의 연동하우스 스마트팜으로 복합환경 제어 기술이 적용돼 컴퓨터가 바깥 날씨와 하우스 내부의 환경을 비교 분석해 방울토마토의 적정 생육 온도를 맞춰 유지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같은 기술 덕분에 차광막, 환기 등을 활용해 농작물을 더 세세히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이머를 이용해 일정 시간마다 물을 주는 방법과 달리 김 대표의 농장은 일정한 햇빛이 쌓이면 물을 공급하는 등 정밀하게 운영된다. 방울토마토는 보통 가을에 심어서

봄에 수확하고, 여름에 새로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등 2년에 나눠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김 대표의 농가는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방울토마토가 자라는 환경을 맞출 수 있어 가을에 심은 방울토마토를 쉬는 기간 없이 다음해 여름까지 쫓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생산비를 절감하고 다른 농장에서 방울토마토가 생산되지 않을 때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는 이상기후가 잦아진 만큼, 날씨를 살피고 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일상인 김 대표는 하루에도 여러 번의 확인을 통해 하우스 내부 환경을 설정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할 정도로 환경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 김 대표는 이러한 환경 관리에 따라 방울 토마토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매주 확인하며 방울토마토의 키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이파리의 크기와 숫자, 줄기의 두께 등을 조사하고 기



김중범 강진 싱글벙글 토마토 농장 대표가 스마트팜에서 키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김현지 기자

록, 정리를 통해 비교·분석하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방법을 체계화하고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광주와 목포의 공판장이 높고 값에 팔리고 있다.

김 대표는 “인터넷 홍보를 따로 하는 것도 아닌데 방울토마토를 먹어본 소비자들이 연락해 재구매를 하는 경우 품질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낀다”며 “그런 소비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품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방울토마토가 성공하기까지는 김 대

표의 철저한 조사와 준비가 있었다.

김 대표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고민하다 귀농을 생각하던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농업인이 되기 위해 목포대학교 원예학과에 입학, 이후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농업이 발달한 네덜란드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방울토마토 농장을 시작하게 됐다.

연고가 없는 강진에 터를 잡은 이유도 일사량이 좋고 자연재해가 덜한 지역의 특성을 미리 조사한 데 따른 것이며, 재배 작물을 정할 때도 좁은 면적에

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작물들을 꼼꼼히 따져 평당 수확량, kg당 판매 가격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향후 김 대표는 농장 규모를 늘려 재배 면적을 키우고 단지화해 최종적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현재는 방울토마토 재배를 체계·매뉴얼화 해 안정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를 달성하면 농장의 규모를 늘리고 주변까지 단지를 조성하고 싶다”며 “이후 생산단지, 유통, 가공 등을 포함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지 기자



전남농협, '6·4Day' 맞아 육포 나눔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최근 장흥축협과 (사)나눔축산운동본부 전남도지부와 함께 농협광주유통센터에서 ‘제12회 6·4Day(육포데이)’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기념하기 위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육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육포데이를 맞아 광주유통센터를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육포 시식과 돌림판을 이용한 증정 이벤트, 최대 24% 할인판매 등으로 이뤄졌다.

육포데이는 한우와 한돈의 소비형태 다양화에 발맞춰 국내산 축산물 가공품인 육포의 인식 개선을 위해 숫자 6(육)과 4(Four-포)의 발음을 조합해 만든 Day 마케팅으로 전남농협이 최초로 실시했다. 또 일상의 가까운 곳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남진 장흥 육포’ 500봉을 전남소방본부에 전달했다.



북광주농협 '사랑의 밑반찬 나눔'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 “북광주농협이 지난 5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취약계층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7일 밝혔다.

행사는 구상봉 조합장을 비롯한 북광주농협 임직원과 고향주부모임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계절김치와 밑반찬을 손수 준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방문해 반찬을 전달, 안부를 살피는 등 온정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북광주농협은 어버이날을 맞아 관내 자연마을 3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떡, 과일, 음료 등 약 70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민과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남농협 “영농철 시설 농자재 공급 확대”

호남자재유통센터와 업무협약...영농비용 절감 등 노력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농협 호남자재유통센터와 농협중앙회 전남·전북지역본부 농자재 실무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설 농자재 계통공급 확대 및 농자재 물량 결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 농자재 적기 공급, 가격 안정을 위한 물량 결집 참여, 농업인 불편 해소,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합리적 가격 공급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또 호남자재유통센터의 올해 자체 판매장 현대화, 하우스 시공 참여 등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종곤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장은 “지역농협 자재센터가 활성화되고 농업인이 구입하고자 하는 영농자재를 센터에서 즉시 구매할 수 있도록 자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농자재의 적기 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해 영농 생산비 절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농협경제지주는 사업비 900억원을 투입해 장성군에 부지 9만여㎡, 35만㎡ 규모의 농협호남자재유통센터를 신축하고 2023년 9월에 업무를 개시, 전남·북 지역농협에 영농자재 1만6천300개 품목, 농기계·농기계부품 1만4천800개 품목 등을 공급하고 있다.

일본산 등 수입산 원산지 표시 ‘이상 無’

전남도, 점검 결과 위반사례 없어...안심 소비 환경 총력

전남도는 7일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중간확인 결과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중간점검은 목포시와 합동으로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는 청호시장과 자유시장 내 상점·음식점 등 30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원산지 표시를 지도·단속했다. 특히 최근 3년 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일본으로

부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점검했으나 위반사례는 없었다.

또 7월부터 원산지 의무표시 품목이 기존 15개에서 20개로 확대·시행됨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5개 품목인 가리비, 방어, 우렁쉥이, 부세, 전복의 원산지 표시 동참도 적극 홍보했다.

김현미 수산유통과과장은 “일본 원전오염수 방류 등 국내외 여건으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며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수입 수산물 이력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